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Weekly Strategy & Economy

순조로운 출발

2013. 1. 7



투자전략팀
Strategist/Economist **마주욱**
02) 3787-5025
majuok@kiwoom.com
Economist/Strategist **전지원**
02) 3787-5231
jiwon@kiwoom.com

키움증권 

CREDIT 

Contents



1. 주간 증시: 순조로운 출발	3
2. 국내외 주요 이슈: Cyclical 비중확대	4
3. 주간 경제 전망: 미국 '재정절벽' 일부 완화	5
4. 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 달러화 강세	7
5. 수급동향: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	9
6. Earnings & Valuation: Multiple 편차	10
7. 해외 증시 동향	11
Chart & Table	13

순조로운 출발

>>> 한 단계 높아진 박스권 예상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KOSPI)은 2,000pt 부근의 등락이 예상 (1,980~2040pt).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일부 타결됨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그리 강하지 않을 것. 정부 부채한도 상향조정과 지출축소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음.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물 출회 등 수급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반면,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글로벌 경기반동이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위험자산으로의 자금유입은 지속될 전망. 이는 국내 주식시장의 조정 폭을 제한할 것으로 기대.

>>> 소재/산업재 비중확대, 아직 늦지 않아

이번 주에도 중국 경제 및 주식시장은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뚜렷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 경기반동에 대한 기대와 유동성 공급은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

글로벌 경기가 소순환 흐름 속 성장동력이 고정자산투자로 이동하는 구간임을 감안하면, 소재/산업재 업종의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 최근 기업실적 전망에 선행하는 재고순환지표는 소재/산업재 업종(고무 및 플라스틱, 금속가공, 기계장비 및 비금속 광물)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음.

>>> 위험자산으로의 자금이동

글로벌 금융시장의 초점이 점차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 최근 미국 채권시장에서의 Yield Curve는 완만히 상승 중. 또한 투기적 거래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포지션이 솟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구리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이 지속 중임.

1. 주간 증시: 순조로운 출발

>>> 국내증시 주간 전망

이번 주 국내 증시, 한 단계 높아진 박스권 예상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KOSPI)은 2,000pt 부근의 등락이 예상된다(1,980~2040pt).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일부 타결됨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그리 강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부채한도 상향조정과 지출축소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물 출회 등 수급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반면,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글로벌 경기반등이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위험자산으로의 자금유입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의 조정 폭을 제한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은 일부 타결됐다. 재정절벽 합의안의 기본 방향은 부유층 과세를 늘리고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감세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부채한도 상향조정과 정부 재정지출을 자동 삭감하는 sequester에 대한 협상시한을 2개월 연장했다. 결국, 미국정부는 3월 초까지 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부채한도 및 재정지출 축소 규모 등을 공식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이런 재정절벽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지표는 개선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경기에 선행하는 ISM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고용지표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에도 중국 경제 및 주식시장은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의지가 뚜렷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반등에 대한 기대와 유동성 공급은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소재 및 산업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환율, 수출주에 부담

한편, 원화 강세 및 엔화 약세는 수출관련 업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자동차 및 부품 업종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IT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음). 다만, 원화 강세 및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됐고, 추가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들 업종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매수는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ISM 제조업지수 vs 서비스업지수



자료: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상하이종합지수 추이



자료: 키움증권

2. 국내외 주요 이슈: Cyclical 비중확대

글로벌 경기 소순환 흐름 속 성장축은?

금융위기 전 글로벌 경기는 신흥공업국의 제조업 설비투자가 주요 경제성장 동력이었지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신흥공업국의 소비지출로 전환되었다. 향후 신흥공업국은 장기적인 소비지출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SOC 투자가 나타나는 구간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중국의 경우, 정권교체 후 도시화 및 SOC 투자와 보장성 주택투자가 강화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비방위 자본재 주문이 1차 금속, 금속가공, 기계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투자, 에너지 가격 안정에 따른 reshoring 움직임, 천연가스 시추를 위한 투자 등을 감안하면, 미국 고정자산투자 역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는 구간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소재/산업재 업종 비중확대,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까지 소재/산업재 업종의 기업실적 전망 개선은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소순환 흐름 속 성장동력이 고정자산투자로 이동하는 구간임을 감안하면, 소재/산업재 업종의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기업실적 전망에 선행하는 재고순환지표는 소재/산업재 업종(고무 및 플라스틱, 금속가공, 기계장비 및 비금속 광물)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고정자산 투자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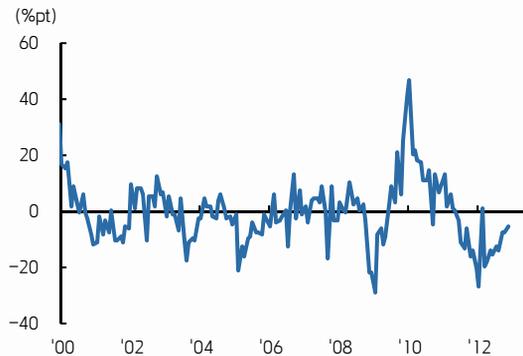
자료: 중국 통계청

미국 비방위 자본재 주문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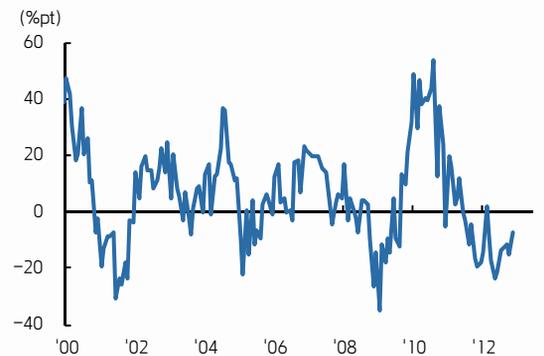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한국 고무 및 플라스틱 재고순환지표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 기계장비 재고순환지표 추이



자료: 통계청

3. 주간 경제 전망: 미국 '재정절벽' 일부 완화

>>> 국내 경제

1월 금통위, 금리동결 전망

1월 금통위에서 금리동결이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정기가 반등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경기의 회복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 우려 역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물론, 새로운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가시화될 수 있고, 김중수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다만, 그 시점이 1월은 아닌 듯 하다.

>>> 미국 경제

'재정절벽' 협상, 일부 타결

재정절벽 협상은 일부 타결됐다. 재정절벽 합의안의 기본 방향은 부유층 과세를 늘리고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감세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출축소와 부채한도 상향조정에 대한 협상시한을 2개월 연장했다. 정부 부채한도 증액과 지출축소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소비자 및 기업의 신뢰지수 회복을 제한할 것으로 우려된다.

>>> 중국 경제

물가 반등세 이어질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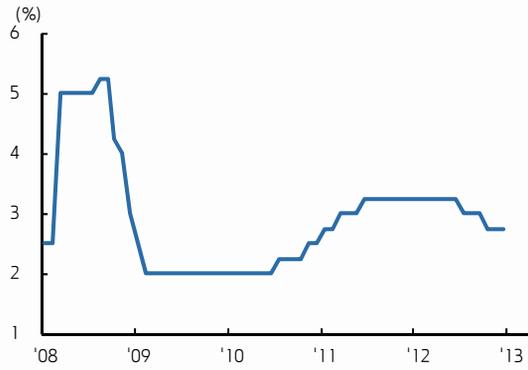
정책당국의 유동성 공급 등의 영향으로 물가는 조금씩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위안화 신규대출과 M2 증가율은 11월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고,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는 하락 폭이 축소되거나 상승 폭이 다소나마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7~1.11)

날짜	국가	경제지표	대상	중요도	전망치	이전치
1월 7일	유럽	독일 국채입찰				
1월 8일	유럽	유로권 소매판매(YoY)	11월	B	NA	-3.6%
		유로권 실업률	11월	B	NA	11.7%
		그리스 국채입찰				
1월 9일	중국	신규위안화대출	12월	B	550.0B	522.9B
		M2 증가율(YoY)	12월	B	14.0%	13.9%
		소비자물가지수(YoY)	12월	A	2.3%	2.0%
		생산자물가지수(YoY)	12월	C	-1.8%	-2.2%
		수출(YoY)	12월	B	5.0%	2.9%
	미국	MBA 모기지 신청지수(WoW,SA)	1월 1주	B	NA	-10.4%
	유럽	독일 국채입찰				
1월 10일	한국	수입물가(YoY)	12월	B	NA	-7.6%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1월 1주	B	361K	372K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금리결정)	1월	A	0.75%	0.75%
		이탈리아 국채입찰				
		스페인 국채입찰				
1월 11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금리결정)	1월	A	2.75%	2.75%
	유럽	이탈리아 국채입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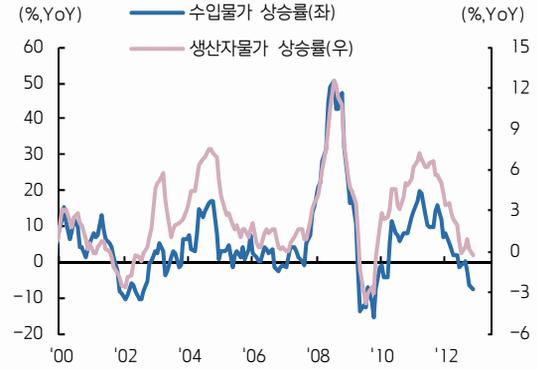
주 '중요도'는 경제지표의 영향력을 표시한 것으로, A는 경제전망에 큰 도움이 되는 핵심 변수를 지칭.

국내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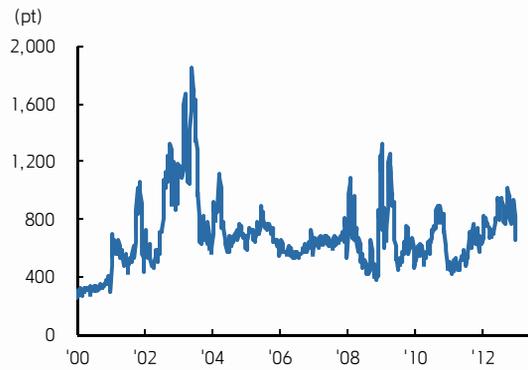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내 수입 및 생산자 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지식경제부

미국 MBA 모기지 신청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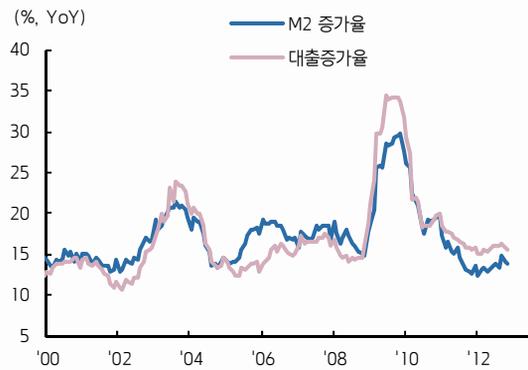
자료: Mortgage Bankers Association

미국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



자료: Department of Labor

중국 M2 증가율 및 위안화 신규대출 증가



자료: 중국 인민은행

중국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 추이



자료: 중국 통계청

4. 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 달러화 강세

>>> 지난 주 동향

달러화, 올해 연준(Fed)이 자산매수를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로 강세

지난 주 달러지수는 전주대비 1.03% 상승 마감했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일부 타결됐고, 이에 따라 위험거래가 다소 증가했다. 그러나, 유로 경제의 위축과 미국 경제지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이 올해에 자산매입 프로그램 종료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로화는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편, 엔화의 약세가 뚜렷해졌다. 지난 한주간 엔/달러 환율은 2.59% 상승했다. 일본의 새로운 정부가 엔화 약세 및 인플레이션 등을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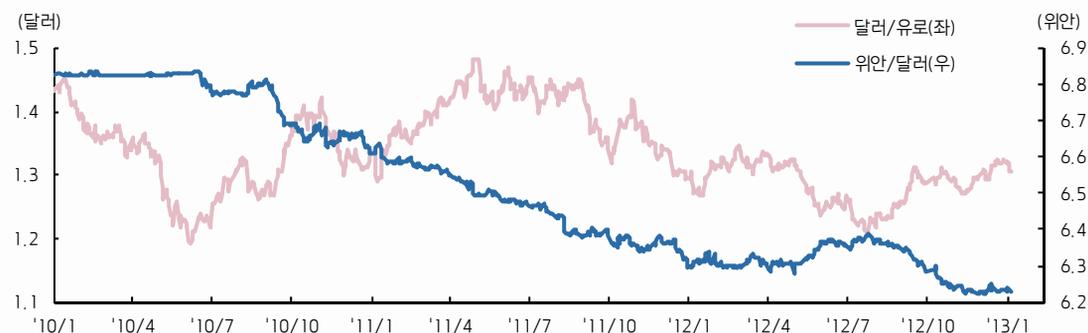
원/달러 환율은 전주대비 0.64% 하락한 1,063.60원에 장을 마감했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일부 타결됐고,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수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외환당국에 대한 경계와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종료 가능성 등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시아 통화지수 및 달러지수



자료: Datastream

유로화 및 위안화



자료: Datastream

>>> 이번 주 전망

원/달러 환율, 1,060~1,080원 중심 등락 예상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1,060~1,080원 중심의 등락이 이어질 전망이다. 역외NDF시장에서의 숏 커버 물량과 수출업체의 네고물량 등을 감안할 때, 외환시장에서 수급 공방이 치열해질 것이다. 다만, 외환 당국이 1,060원 선을 앞두고 강한 방어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규제에 대한 리스크도 남아있다. 이에 따라 1,060선이 쉽게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일부 타결에 그쳐, 이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다.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1,060~1,080원 부근에서 좁은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다. 다만, 원/달러 환율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최근 주요국 통화의 대미 달러환율 변동률

	전주 말 1월 4일	1주 전 대비(%)	11월 말 대비(%)	2012년 말 대비(%)	12월 28일	11월 말	6개월 전	2012년 말
달러/유로	1.3069	-1.11	0.64	-0.94	1.3216	1.2986	1.2527	1.3193
엔/유로	115.21	1.41	7.56	0.66	113.61	107.11	100.07	114.46
엔/달러	88.15	2.55	6.87	1.61	85.96	82.48	79.88	86.75
위안/달러	6.2306	-0.03	0.06	0.00	6.2322	6.2266	6.3475	6.2306
원/달러	1,063.68	-0.64	-1.77	-0.07	1,070.53	1,082.85	1,135.70	1,064.40
원/100엔	1,206.66	-3.20	-8.09	-1.66	1,246.50	1,312.92	1,421.85	1,227.05
대만 달러/달러	29.02	-0.05	-0.11	-0.04	29.04	29.05	29.83	29.03
스위스 프랑/달러	0.9246	1.22	-0.38	1.01	0.9135	0.9281	0.9588	0.9154
달러/호주 달러	1.0480	1.03	0.50	0.83	1.0373	1.0428	1.0276	1.0394
달러지수	80.50	1.03	0.43	0.92	79.68	80.15	81.78	79.77

자료: Datastream

원/달러 환율 vs 엔/달러 환율



자료: Data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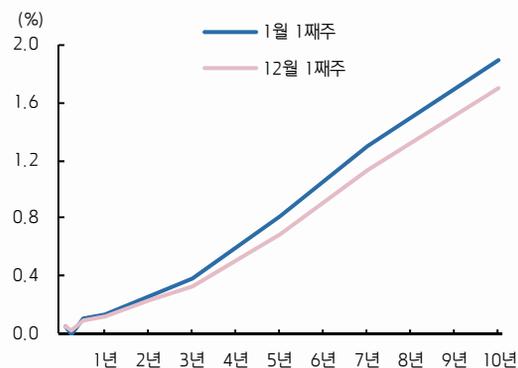
5. 수급동향: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

글로벌 금융시장의 초점은 이동 중

재정절벽을 막기 위한 합의안 주요내용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높이는 부자 증세와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 1년 연장, 발효 예정이었던 정부지출 자동 삭감 시기를 2달 연장하는 것이었다. 2달 동안 예산지출 감축안과 국가 부채한도 상향조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완전한 재정절벽 리스크 해소보다는 재정절벽 회피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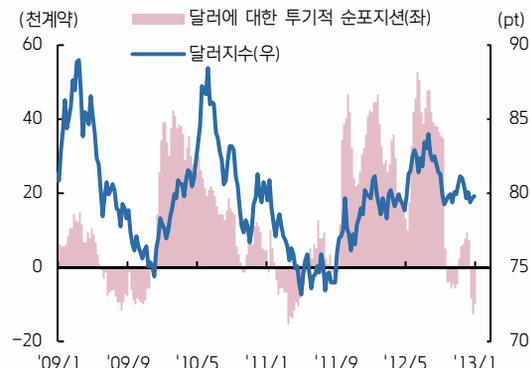
다만 재정절벽에 대한 불확실성의 크기는 확실히 감소했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초점이 점차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이동 중이라는 점에 주목할 시점이다. 최근 미국 채권시장에서의 Yield Curve는 완만히 상승 중이다. 또한 투기적 거래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포지션이 솟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구리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이 지속 중이다.

미국 Yield Cur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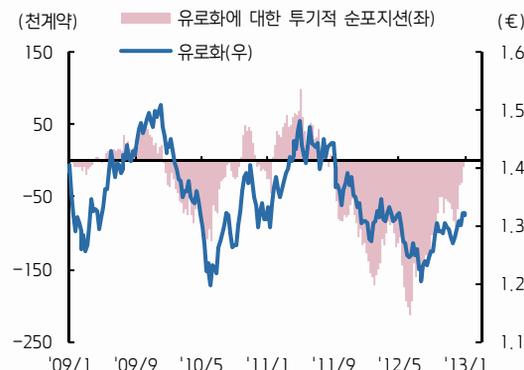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달러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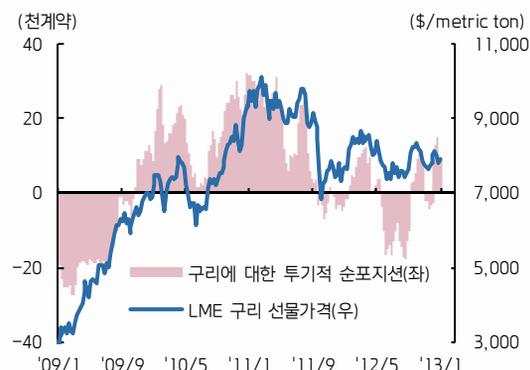
자료: CFTC

유로화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 추이



자료: CFTC

구리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 추이



자료: CFTC

6. Earnings & Valuation: Multiple 편차

>>> 업종간 밸류에이션 축소될 듯

지난 해 성장의 희소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과 더불어 중국 및 이머징 내수확대의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 및 업종에 대해 상대적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불되었다. 이는 투자자들이 안전한 천국에 가치를 더욱 부여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구간에서 Market PER은 하락했다. 하지만, 그동안 하락했던 Market PER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반등하는 구간으로 판단된다. Market PER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경기방어주와 경기민감주의 PER Spread는 축소된다. 최근 필수소비재 업종과 소재/산업재 업종간의 PER Spread가 역사적 상단 근처에서 축소되기 시작하고 있음에 주목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주요 지역 및 증시 EPS 추정치 변화율

구분	지역 및 국가	12개월 Forward 기준				2012년 실적전망 기준			2013년 실적전망 기준			PER
		1W	1M	3M	6M	1M	3M	6M	1M	3M	6M	
대륙	AC World	-0.3	0.3	-0.7	0.7	0.4	-2.4	-3.6	0.3	-3.4	-4.7	12.2
	AC Asia-Pacific	-0.5	-1.5	-2.9	-3.0	-1.4	-8.4	-11.7	-1.5	-5.7	-8.2	12.3
	AC Asia-Pac. Ex. JP	-0.4	-0.8	1.3	0.8	-0.8	-1.5	-3.3	-0.8	-1.6	-5.2	11.9
	AC Americas	-0.1	0.6	-0.1	1.6	0.6	-1.4	-1.7	0.6	-2.8	-4.1	12.8
	AC Europe	-0.2	0.9	-0.1	1.9	1.2	0.1	-1.0	0.9	-2.8	-3.1	11.0
선진 시장	World	-0.3	0.3	-1.0	0.5	0.6	-2.4	-3.3	0.3	-3.7	-4.9	12.5
	G7	-0.3	0.3	-1.2	0.2	0.7	-2.4	-3.3	0.3	-3.9	-5.1	12.4
신흥 시장	Emerging Market	0.2	-0.1	0.9	1.8	-1.1	-3.0	-5.3	-0.2	-1.9	-3.5	10.5
	Emerging Market Asia	-0.1	-0.6	2.7	2.4	-1.1	-1.4	-4.4	-0.6	-0.5	-4.1	10.9
아시아 태평양 (8)	KOREA	-0.3	-1.0	1.8	2.0	-2.5	-3.3	-7.6	-1.0	-1.9	-4.9	8.6
	JAPAN	0.1	0.1	-2.2	-3.8	-0.1	-14.0	-21.1	0.1	-4.7	-7.3	13.1
	CHINA	0.1	-0.6	1.6	-3.1	-0.9	-1.2	-6.8	-0.6	-0.5	-8.0	9.9
	INDIA	0.0	-1.7	0.8	0.8	-1.7	-3.0	-6.0	-1.8	-2.3	-5.5	14.2
	TAIWAN	-0.1	0.9	4.8	0.3	2.1	-1.9	-9.6	0.9	0.2	-9.3	14.2
	SINGAPORE	-0.1	-0.7	-2.0	-2.4	0.6	-1.4	-1.2	-0.6	-3.3	-6.7	13.9
	HONG KONG	-0.1	-0.6	1.7	3.0	0.2	-0.7	-2.5	-0.6	-0.7	-2.6	15.2
	AUSTRALIA	0.3	-0.6	-0.9	-7.5	-0.2	-3.2	-4.2	-0.7	-3.3	-2.1	13.3
아메리카 (4)	USA	-0.3	0.6	-0.1	1.8	0.8	-0.8	-0.8	0.6	-2.7	-3.9	12.8
	CANADA	0.8	0.4	2.6	-0.6	1.2	0.4	-4.7	0.5	-0.3	-7.0	12.8
	BRAZIL	-0.1	-4.2	-3.3	-7.8	-4.9	-10.0	-18.5	-4.2	-6.5	-12.7	10.8
	MEXICO	0.1	-0.5	2.3	1.5	1.3	2.2	-3.2	-0.5	-1.6	-5.7	17.3
유럽 (5)	UK	0.4	-0.9	-1.0	-5.9	-0.4	-1.0	-7.8	-0.9	-3.4	-10.1	10.9
	FRANCE	0.0	-0.6	-1.5	-2.6	0.6	-1.2	-5.2	-0.5	-4.0	-7.5	11.0
	GERMANY	0.0	-0.3	-1.7	-1.7	0.1	6.9	5.9	-0.3	-4.2	-7.4	11.0
	ITALY	0.0	-1.0	-3.5	-8.1	-0.6	-4.1	-11.0	-0.9	-6.3	-13.8	9.5
	RUSSIA	1.4	3.4	-1.4	3.4	3.0	-1.0	2.0	3.4	-1.3	5.5	5.0

자료: IBES

필수소비재-화학 PER Spread 추이



자료: IBES 주 12개월 Fwd PER 기준

필수소비재-기계 PER Spread 추이



자료: IBES 주 12개월 Fwd PER 기준

7. 해외 증시 동향

>>> 지난 주 다우지수, 3.84% 상승

재정절벽 협상 타결과 주요 경제지표 개선으로 인해 상승 마감

지난주 미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미국 상·하원에서 재정절벽 합의안이 극적 타결되면서, 주 초반 큰 폭 상승세를 보였다. 주 중, 3차 양적완화의 조기 종료 우려로 차익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지만, 제조업 및 고용지표의 개선으로 지수는 상승 마감했다.

12월 31일(현지시간) 자정을 3시간 앞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상원 공화당은 부자증세를 포함한 재정절벽 합의안을 마련했다. 부자증세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개인 소득 40만 달러 이상으로 합의했다. 40만 달러를 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35%에서 39.6%로 올랐고,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역시 각각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다. 재정절벽 리스크가 완화된 데 이어, ISM 제조업지수가 50.7로 한달 만에 확장국면으로 돌아서면서 미 증시는 13개월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FOMC 의사록에서, 다수 위원들이 연내 양적완화 조치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 알려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기도 했다. 하지만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자산매입 중단 결정은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라 경제 상황에 기초한다고 밝혔고, 12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것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12월 비농업 취업자수는 15만 5천명으로 시장예상치 15만 2천명보다 상회했고, 실업률은 7.8% 전월수준을 유지했다.

>>> 지난 주 상하이 종합지수, 1.96% 상승

2013년 첫 거래일, 에너지 자원주 중심으로 상승추세 이어가

2013년 첫 거래일인 지난 1월 4일 중국증시는 상승추세를 이어갔다. 미국의 재정절벽 타결 소식과 1월 중국 PMI(50.6%)가 양호한 모습을 기록한 것, 도시화 및 철도건설에 대한 계획이 가시화 된 것 등의 호재가 지수상승을 이끌었다. 주요 상승 업종은 철도기초건설, 철강, 비철금속 그리고 금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상승세에 대한 부담으로 2,290pt 선 돌파 이후 부동산, 전자재, 시멘트, 가전, 여행업종 등의 조정양상이 나타내며 당일 상승 폭을 반납했다(상해종합지수는 12월에만 11월 말 대비 약 14% 이상의 상승을 기록). 한편, 차이네스트의 경우 이번주 12개 종목의 350억 위안 규모 보호예수물량이 해제됨에 따라 1.19% 하락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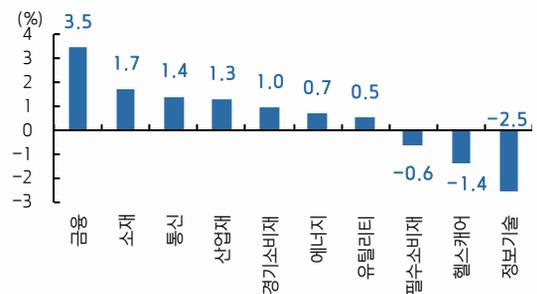
중국 경제관찰보는 양회(3월)이전 도시화 건설계획에 대한 구체적 의견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도시화에 있어 '중국특색의 도시화도'를 강조하며 2020년까지 전국 20개 이상의 대형도시 건설, 현(縣)급 이상의 도시 180개 건설, 비농업 인구가 주를 이루는 소형도시 10,000개 건설을 목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한 철도, 도로, 항만, 항공 등의 SOC 투자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P 500 업종별 주간 등락률



자료: DataStream

심호 300 업종별 주간 등락률



자료: DataStream

KIWOOM 

ONLINE NO.1 KIWOOM SECURITIES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Chart & Table

>>> 증시 주요지표

거래소 시장

구분			12/27	12/28	1/2	1/3	1/4
가격 지표	KOSPI		1,987.35	1,997.05	1,826.37	2,019.41	2,011.94
		등락폭	+5.10	+9.7	+0.63	-11.69	-7.47
		(시가)	1,979.46	1,984.84	1,831.69	2,041.24	2,017.88
		(고가)	1,987.91	2,002.67	1,837.81	2,042.48	2,018.63
		(저가)	1,971.53	1,984.84	1,814.55	2,018.49	2,001.53
		대형주 지수	1,981.60	1,991.07	1,785.92	2,016.43	2,005.83
		중형주 지수	2,086.10	2,096.98	2,113.77	2,105.56	2,116.04
		소형주 지수	1,294.50	1,300.82	1,275.86	1,318.33	1,324.92
	이동평균	(5일)	1,986.27	1,985.78	1,835.19	2,003.43	2,009.37
		(20일)	1,965.63	1,969.85	1,856.10	1,978.98	1,982.58
		(60일)	1,937.03	1,937.04	1,858.71	1,938.09	1,938.59
		(120일)	1,919.85	1,921.01	1,877.84	1,924.22	1,925.77
이격도	(5일)	100.05	100.57	99.52	100.80	100.13	
	(20일)	101.10	101.38	98.40	102.04	101.48	
투자심리	(%)	70	70	50	70	70	
거래량 지표	시가총액	(십억원)	1,148,347	1,154,147	1,042,325	1,166,798	1,162,350
	거래량	(천주)	376,071	302,926	323,358	491,014	378,862
	이동평균	(5일)	431,568	407,767	400,568	398,417	382,590
		(20일)	398,942	393,643	426,228	400,095	403,294
	거래대금	(십억원)	3,066	3,299	3,304	6,094	4,790
		이동평균 (5일)	4,166	3,718	3,493	4,107	4,342
이동평균 (20일)	4,298	4,268	4,559	4,326	4,396		
매매 주체별 순매수	개인	(억원)	1,287	-1,398	72	-446	865
	외국인	(억원)	-1,672	-280	-1,005	1,111	544
	기관	(억원)	454	1,792	2,322	-700	-1,349
	일반법인	(억원)	-78	-151	28	31	-77
	프로그래매매	(억원)	379	-614	-3,318	3,507	4,651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코스닥 시장

구분			12/27	12/28	1/2	1/3	1/4	
가격 지표	KOSDAQ		492.08	496.32	506.79	499.07	504.84	
		등락폭	+9.32	+4.24	+6.61	-2.54	+5.77	
		(시가)	484.30	493.66	504.41	504.64	500.27	
		(고가)	492.10	496.32	506.83	504.76	504.85	
		(저가)	484.30	493.16	502.69	498.98	499.44	
		등락종목	상승 (상한가)	573 (13)	606 (12)	568 (29)	429 (14)	566 (12)
		하락 (하한가)	365 (1)	306 (1)	387 (4)	500 (1)	326 (2)	
		이동평균	(5일)	483.17	486.60	499.04	494.37	498.78
	(20일)		489.44	489.54	501.73	489.76	490.06	
	(60일)		506.46	505.94	494.66	504.83	504.28	
	(120일)		500.30	500.30	488.94	500.41	500.51	
	이격도	(5일)	101.84	102.00	101.55	100.95	101.21	
(20일)		100.54	101.39	101.01	101.90	103.02		
투자심리	(%)	50	50	70	40	50		
거래량 지표	시가총액	(십억원)	107,868	108,809	107,358	109,452	110,717	
	거래량	(천주)	355,609	329,013	433,447	388,426	399,804	
	이동평균	(5일)	331,323	328,623	522,580	348,668	363,077	
		(20일)	351,306	345,806	581,276	341,387	343,866	
	거래대금	(십억원)	1,668	1,509	2,562	1,749	1,893	
		이동평균 (5일)	1,533	1,533	2,526	1,585	1,667	
이동평균 (20일)	1,626	1,615	3,118	1,602	1,616			
매매 주체별 순매수	개인	(억원)	-652	-235	43	363	-645	
	외국인	(억원)	223	-162	-84	-172	298	
	기관	(억원)	504	423	93	-204	392	
	일반법인	(억원)	-67	-26	-60	4	-44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증시 자금동향

역내 펀드 자금유출입

	12년 말	주간증감	12/27	12/28	1/2	1/3
고객예탁금	170,750	179,027	180,143	170,750	180,522	181,875
(증감)		+1,363	+1,115	-9,393	+9,773	+1,353
신용융자 (거래소)	21,671	22,237	22,029	21,671	21,992	21,952
(증감)		-114	-208	-358	+322	-40
신용융자 (코스닥)	16,865	17,138	17,095	16,865	17,046	17,008
(증감)		-60	-43	-230	+181	-39
미수금	1,209	1,165	1,241	1,209	1,271	1,232
(증감)		-82	+77	-32	+62	-38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	738,939	737,822	737,330	738,939	738,770	734,217
(증감)		-1,032	-492	+1,609	-169	-4,552
국내 공모 주식형 수익증권(Index펀드 포함)	656,331	655,068	654,863	656,331	656,128	651,580
(증감)		-879	-205	+1,468	-203	-4,548
국내 공모 주식형 수익증권(Active)	497,993	496,518	496,600	497,993	497,833	494,991
(증감)		-539	+81	+1,394	-160	-2,842
국내 사모 주식형 수익증권	82,608	82,754	82,467	82,608	82,642	82,637
(증감)		-153	-287	+141	+34	-5
해외 주식형 수익증권	283,144	283,321	283,050	283,144	283,321	283,137
(증감)		-377	-270	+94	+178	-184
주식혼합형 수익증권	100,481	100,506	100,435	100,481	100,534	100,115
(증감)		+10	-71	+46	+53	-419
해외 주식혼합형 수익증권	26,229	26,272	26,233	26,229	26,208	26,158
(증감)		-9	-40	-4	-21	-49
채권혼합형 수익증권	191,838	191,264	192,042	191,838	191,435	192,519
(증감)		-743	+778	-204	-403	+1,084
채권형 수익증권	468,848	467,657	468,680	468,848	467,012	469,048
(증감)		+1,767	+1,023	+168	-1,836	+2,036
MMF	631,380	668,102	636,706	631,380	637,350	667,224
(증감)		-13,082	-31,396	-5,326	+5,970	+29,874

자료: 자산운용협회, 제로인, 키움증권

>>> 외국인/기관 주간 순매수/순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 (KOSPI) (단위: 억원)

순위	순매수		순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KODEX 200	707	현대차	1,316
2	SK하이닉스	665	현대모비스	1,269
3	LG전자	551	기아차	774
4	삼성전자	463	한국타이어	240
5	KB금융	433	OCI	209
6	LG화학	420	한화케미칼	148
7	호남석유	354	고려아연	146
8	삼성SDI	335	삼성화재	131
9	현대건설	321	삼성증권	96
10	롯데쇼핑	290	대우인터내셔널	86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기관 (KOSPI) (단위: 억원)

순위	순매수		순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TIGER 유동자금	773	기아차	1,165
2	POSCO	651	삼성전자	1,010
3	삼성증권	516	현대위아	560
4	OCI	404	KODEX 200	538
5	대한항공	346	고려아연	395
6	LG전자	328	현대차	391
7	한국전력	284	삼성전기	332
8	신한지주	283	NHN	322
9	대림산업	239	LG화학	303
10	SK	226	현대모비스	265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외국인 (KOSDAQ) (단위: 억원)

순위	순매수		순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다음	116	파라다이스	59
2	코미팜	59	성광벤드	41
3	셀트리온	41	컴투스	38
4	원스텍코넷	21	위메이드	22
5	메가스터디	14	서울반도체	21
6	포스코 ICT	14	성우하이텍	20
7	네오위즈게임즈	12	매일유업	18
8	비아트론	11	계임빌	16
9	동서	10	CJ오쇼핑	15
10	KG모빌리언스	8	이엘케이	14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기관 (KOSDAQ) (단위: 억원)

순위	순매수		순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YG엔터테인먼트	89	셀트리온	76
2	서울반도체	83	성우하이텍	56
3	파라다이스	82	씨젠	45
4	다음	65	성광벤드	31
5	네퍼스	46	제닉	27
6	테라세미콘	43	나노신소재	23
7	에스에프에이	35	평화정공	21
8	일진에너지	26	비에이치	18
9	덕산하이메탈	21	KG이니시스	17
10	솔브레인	20	비아트론	17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Technical Approach

전고점 돌파종목 (단위: 원)

KOSPI	전일 종가	KOSDAQ	전일 종가
현대백화점	170,500	화일약품	8,970
농심	293,500	파트론	20,650
한미약품	127,000	바이오니아	10,300
LG생명과학	51,000	서원인텍	9,700
CJ	128,000	케이엠더블유	14,650
쌍용양회	5,930	에스에너지	11,300
경방	93,500	나노스	17,450
CJ제일제당	375,000	코나아이	22,750
롯데쇼핑	392,000	에프티이앤이	3,690
롯데칠성	1,532,000	서울반도체	25,000

주: 전일 종가가 3개월 이내 최고종가인 종목 중 주가등락을 상위 종목

이격 확대종목 (단위: %)

KOSPI	이격도	KOSDAQ	이격도
알앤엘바이오	79	성우하이텍	89
대한전선	84	조이맥스	89
에스엘	89	인터론바이오	90
현대모비스	90	인터플렉스	91
기아차	91	평화정공	92
고려아연	92	뷰웍스	92
현대위아	92	제닉	92
KT&G	92	예림당	92
현대차	92	농우바이오	93
한섬	92	아이엠	93

주: 20일 이격도 기준 이격확대(이격도 98% 이하) 상위 종목

Stochastic Slow 신호 발생종목 (단위: %)

KOSPI	Slow %K	KOSDAQ	Slow %K
한솔테크닉스	27	사파이어테크놀	29
후성	25	동양시멘트	27
		경동제약	26

주: Slow %K가 20% 선을 상향 돌파하는 종목

외국인 지분율 확대종목 (단위: %)

KOSPI	외국인 지분율	KOSDAQ	외국인 지분율
없음		신화인터텍	7.65
		원스텍코브	7.02

주: 20 거래일 대비 외국인 지분율 3% 이상 확대 종목

상한가 종목 (단위: 원)

KOSPI	전일 종가	KOSDAQ	전일 종가
없음		화일약품	8,970
		샤인	11,400

주: 최근 10일 중 첫 상한가 기록 종목

단기 골든크로스 발생종목 (단위: 원)

KOSPI	전일 종가	KOSDAQ	전일 종가
지에스인스트루	660	화일약품	8,970
성지건설	5,800	매일유업	34,150
CJ대한통운	107,500	루미마이크로	3,065
이수페타시스	4,800	캠트로닉스	16,050
코라오홀딩스	19,100	이노와이어	19,000
삼양식품	25,700	쿠팡스	49,750
팜스코	4,330	레드로버	5,680
사조오양	11,800	우전앤한단	7,200
한솔제지	9,300	옵트론텍	13,350
SK케미칼	62,100	유원컴텍	9,520

주: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한 종목 중 주가등락을 상위 종목

거래 급증종목 (단위: %)

KOSPI	거래증가률	KOSDAQ	거래증가률
웅진에너지	344.34	미래컴퍼니	543.41
오뚜기	189.54	화일약품	532.31
LG생명과학	167.30	에스앤씨엔진그룹	461.07
종근당	157.30	이노와이어	432.16
동아제약	134.64	한국사이버결제	431.47
한솔테크닉스	133.26	다날	406.70
현대백화점	130.93	한국정보통신	387.87
농심	124.88	블루콤	340.62
한미약품	103.71	KG모빌리언스	314.04
제일기획	101.88	이지바이오	313.17

주: 전일 3% 이상 주가 상승 종목 중 20일 평균대비 50% 이상 거래증가 종목

기관 매수세 유입 종목 (단위: %)

KOSPI	주가 등락율	KOSDAQ	주가 등락율
CJ대한통운	5.39	다음	6.62
농심	4.82	플랜티넷	6.02
제일기획	4.28	케이엠더블유	4.64
LG생명과학	4.08	메디톡스	4.33
유한양행	3.42	엘비세미콘	3.73
녹십자	2.97	YG엔터테인먼트	3.73
SK텔레콤	2.33	코나아이	3.41
쌍용양회	2.24	포스코 ICT	3.35
대원강업	2.16	솔브레인	2.76
LG유플러스	1.99	유아이다	2.23

주: 최근 10일 중 7일 이상 기관 순매수 유입 종목 중 등락률 상위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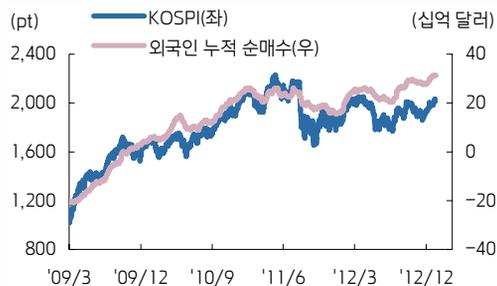
>>> 아시아 증시 외국인 및 Global Fund Flow 동향

외국인, 지난 주 매수 우위 (단위: Mil \$, %, pt)

	대표지수 동향			외국인 순매수 금액			
	1월 4일	등락률	12월 28일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누적
한국	2,011.94	-0.4	-37.8	278.8	3,378.3	2,021.8	10,009.7
대만	7,805.99	-0.4	0.0	198.0	1,756.3	2,100.7	5,706.4
인도	19,784.08	0.3	164.9	993.6	4,862.0	9,342.2	16,003.3
태국	1,416.66	0.6	51.7	179.6	1,007.4	500.5	528.9
필리핀	5,971.45	0.6	58.0	113.2	438.4	434.5	1,604.3
인도네시아	4,410.02	0.2		174.3	97.7	99.0	1,676.6
일본	10,688.11	2.8	-	9,080.0	17,392.7	21,409.9	16,823.0

자료: Thomson Reuters, 키움증권 주: 외국인 순매수 금액, 일본 1주 지연 데이터, 인도 1일 지연 데이터

한국 증시(KOSPI)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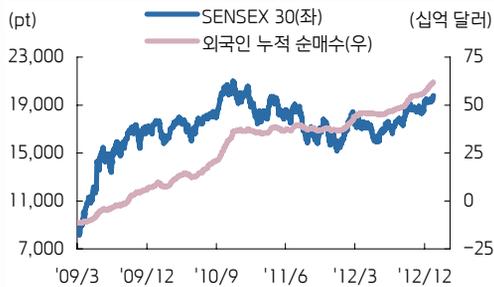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대만 증시(TWSE)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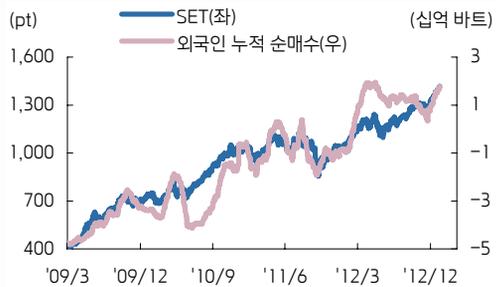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인도 증시(SENSEX)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태국 증시(SET)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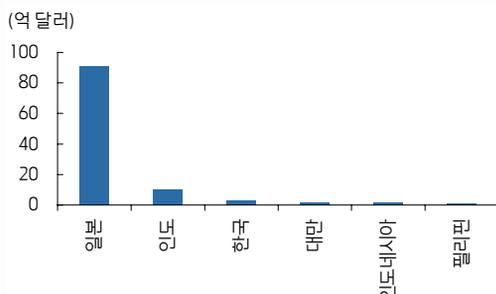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인도네시아(JCI) vs 외국인 순매수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지난주 아시아 증시 외국인 매매 동향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MSCI 주요 지역별 실적전망 변화

세계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의료, 산업재, 필수소비재 업종 하향조정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2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전체	-0.3	0.3	-0.7	0.7	0.4	-2.4	-3.6	-18.6	-16.6	-13.1	-28.8	12.2
에너지	-0.2	0.4	-1.9	-2.7	0.5	-1.0	-3.8	-34.9	-22.4	-27.6	-48.6	10.0
소재	0.1	-0.5	-3.3	-11.0	-1.4	-9.2	-20.3	-42.6	-35.6	-29.8	-48.5	12.3
산업재	-0.5	-0.7	-3.7	-1.4	-0.4	-5.3	-5.3	-34.0	-33.9	-26.2	-18.8	12.8
경기소비재	0.0	0.1	-1.8	1.3	0.8	-4.9	-4.8	-17.2	-16.6	-6.8	-12.9	13.4
필수소비재	-0.5	1.0	1.8	5.8	1.0	-0.5	1.1	-16.4	-12.7	0.0	-24.1	15.5
의료	-0.7	0.4	0.3	3.6	0.6	-0.4	1.2	7.4	-6.0	-2.3	-7.6	13.0
금융	-0.3	0.1	1.0	4.1	-0.2	-2.2	-1.4	-4.4	-3.6	-2.4	-19.6	10.9
IT	0.1	0.6	-1.1	-0.7	1.1	-1.1	-4.1	-8.1	0.5	-17.1	-32.0	12.3
통신서비스	1.0	4.2	15.1	35.6	3.2	11.2	25.2	-39.1	-33.7	-9.3	-16.1	12.1
유틸리티	0.0	2.6	4.6	7.6	4.3	6.2	6.1	-1.5	-5.2	-4.4	-17.5	14.1

한국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필수소비재, 의료, 산업재 업종 하향조정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2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전체	-0.3	-1.0	1.8	2.0	-2.5	-3.3	-7.6	-40.9	-30.0	-18.3	-22.4	8.6
에너지	0.0	0.1	1.4	-7.4	-0.8	-8.6	-27.7	33.3	-33.3	66.7	-66.7	8.7
소재	0.2	-3.8	-11.7	-16.9	-5.7	-17.7	-27.8	-60.0	-33.3	-38.5	-21.4	10.2
산업재	-1.6	-16.8	-14.8	-16.6	-18.2	-16.1	-22.0	-34.8	-33.3	-12.5	-17.9	11.0
경기소비재	-0.1	-3.3	-1.5	5.6	-3.2	-3.9	1.8	-58.3	-27.3	-25.0	-58.3	6.7
필수소비재	-12.1	0.1	-4.3	-3.5	0.3	-6.1	-8.8	20.0	-40.0	-33.3	0.0	16.4
의료	-9.1	-12.8	-15.0	-8.6	-10.3	-22.4	-23.6	-100.0	-50.0	-50.0	0.0	21.8
금융	-0.1	-0.9	-7.8	-12.4	-0.5	-6.1	-8.9	-80.0	-45.0	-15.0	-5.0	7.9
IT	1.1	3.9	15.5	17.9	1.2	6.8	1.7	37.5	25.0	-37.5	-37.5	8.4
통신서비스	0.0	1.0	4.6	7.6	-1.0	-4.7	-14.8	0.0	0.0	0.0	-33.3	8.8
유틸리티	0.0	-5.0	84.5	46.9	7.6	36.9	3206.4	-100.0	-50.0	-50.0	0.0	21.5

미국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소재, 통신서비스, 의료, 금융, 에너지 업종 하향조정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2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전체	-0.3	0.6	-0.1	1.8	0.8	-0.8	-0.8	-7.5	-10.2	-2.3	-34.2	12.8
에너지	-0.4	0.6	-1.8	-2.4	0.9	0.1	-1.6	-45.5	-35.2	-50.9	-69.1	11.3
소재	-1.3	-0.5	-3.1	-3.7	-0.3	-6.5	-12.3	-2.9	-17.1	0.0	-60.0	13.0
산업재	-0.4	1.0	-1.4	0.9	1.2	-1.7	-1.4	-20.5	-28.0	-16.2	-44.0	13.1
경기소비재	0.4	1.4	1.6	3.9	2.3	0.7	2.4	-3.0	-4.1	3.1	-16.3	15.1
필수소비재	-0.3	2.0	3.8	6.1	2.1	1.2	1.5	21.3	6.4	21.7	-6.4	14.8
의료	-0.8	0.8	0.5	3.6	1.0	0.1	1.4	-11.9	-13.8	3.4	-15.5	12.7
금융	-0.5	-0.3	2.3	6.1	-1.2	-3.1	-1.0	-8.7	-10.6	16.2	-20.6	11.6
IT	0.2	0.2	-3.6	-2.8	0.9	-1.2	-2.6	0.0	9.5	-9.4	-57.6	12.0
통신서비스	-1.1	0.2	6.6	13.3	-0.3	2.7	0.4	-30.0	-10.0	-10.0	-72.7	17.5
유틸리티	-0.2	1.6	1.0	2.9	2.0	1.8	3.6	23.5	-6.1	9.1	-20.6	14.4

중국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유틸리티 업종 상향조정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2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전체	0.1	-0.6	1.6	-3.1	-0.9	-1.2	-6.8	-21.5	-25.0	-31.2	-48.3	9.9
에너지	0.1	-0.5	0.8	-7.7	-0.9	0.1	-10.1	-33.3	-11.1	-33.3	-66.7	9.9
소재	0.1	-1.0	2.4	-17.3	-2.5	-8.8	-34.3	0.0	-10.0	-57.1	-72.7	10.6
산업재	-0.7	-3.0	-1.8	-10.4	-3.3	-7.2	-19.6	-40.0	-39.3	-64.3	-13.8	11.6
경기소비재	-0.1	-1.8	-1.2	-8.5	-2.4	-7.4	-19.1	-64.7	-52.6	-21.1	-68.4	13.2
필수소비재	-0.2	-3.9	-1.4	-8.1	-5.7	-6.5	-14.0	-54.5	-45.5	-27.3	9.1	22.3
금융	0.1	-0.4	2.2	-0.4	-0.7	-0.5	-1.8	0.0	3.1	-15.6	-40.6	7.6
IT	-0.3	0.2	1.0	-2.1	-0.5	-7.9	-15.5	60.0	-20.0	-20.0	20.0	20.0
통신서비스	0.0	-1.0	1.2	0.8	-0.7	0.8	-0.4	-75.0	-25.0	50.0	-50.0	12.1
유틸리티	0.2	0.4	5.9	15.8	-0.1	0.7	4.6	25.0	-25.0	25.0	0.0	12.1

자료: IBES(2013. 01. 03 기준),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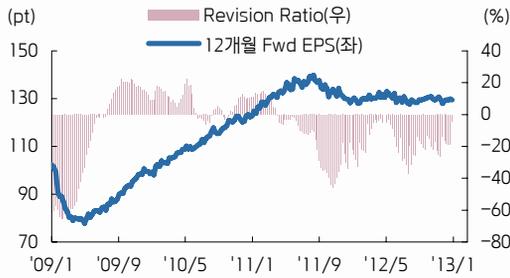
주: Revision Ratio, PER은 12개월 Forward EPS 기준

Revision Ratio = [(12개월 Forward EPS 상향조정 기업 수 - 하향조정 기업 수) / 총 기업 수]

중국 의료 업종은 Data가 없는 관계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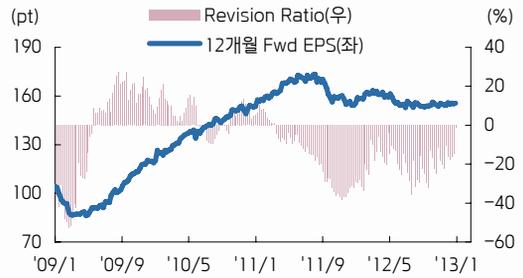
>>> MSCI 주요 지역별 12M Fwd EPS & Revision Ratio 추이

AC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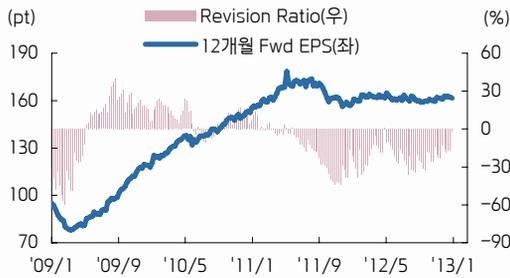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EMERGING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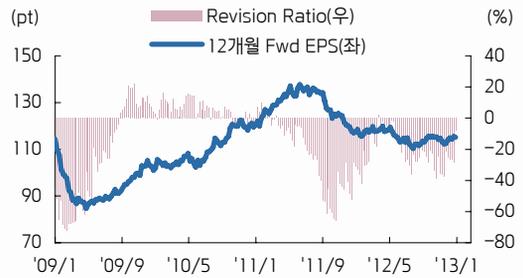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ASIA-PAC. EX 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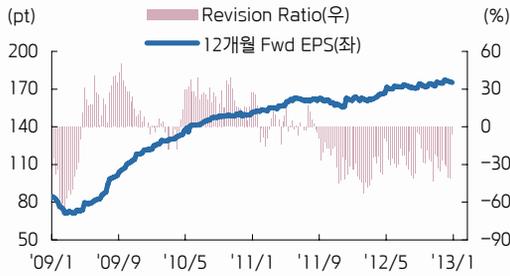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EUR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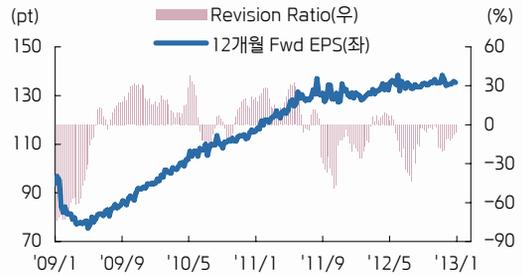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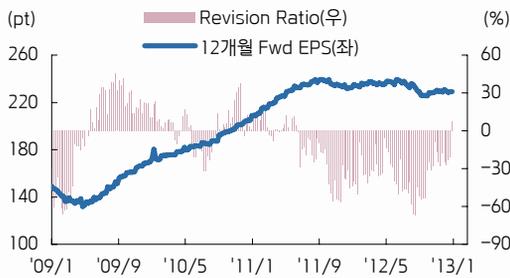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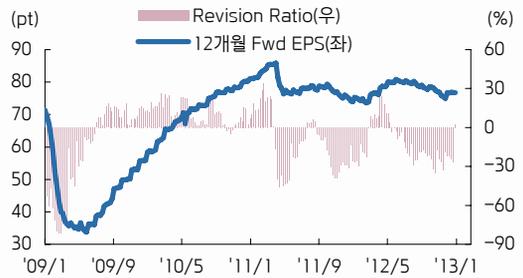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CHINA



자료: IBES, 키움증권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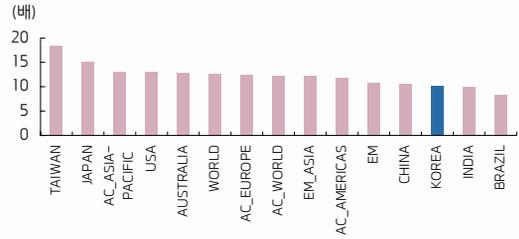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 MSCI 주요 지역 업종별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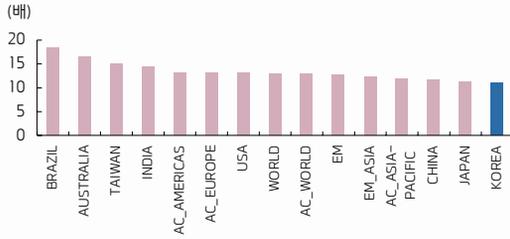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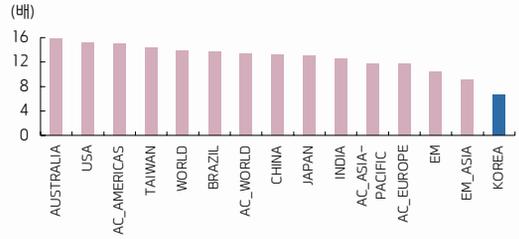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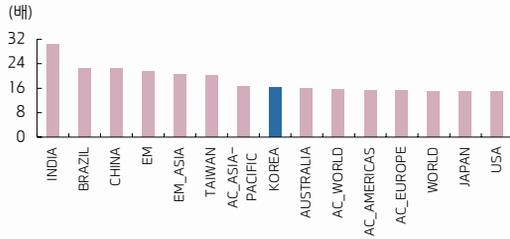
산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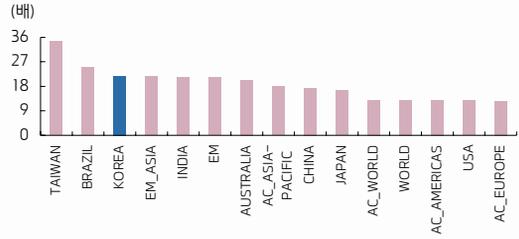
경기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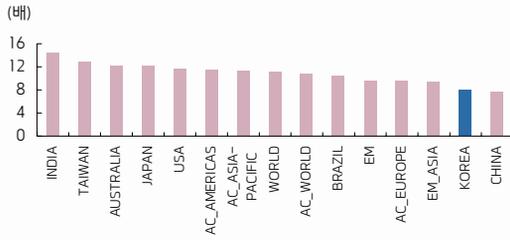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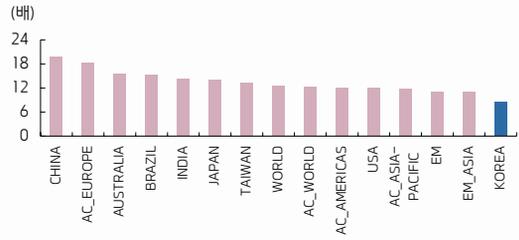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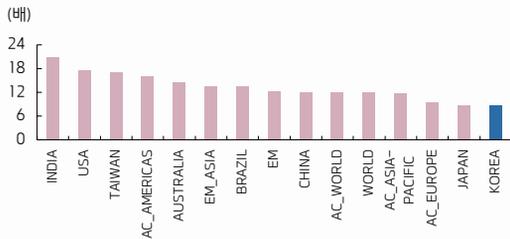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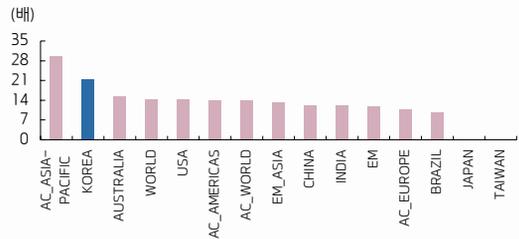
IT



통신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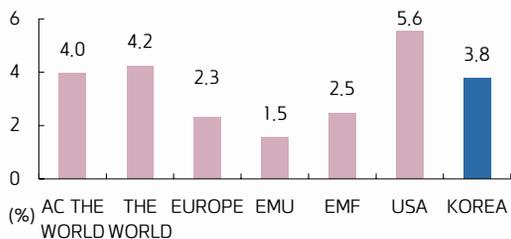
유틸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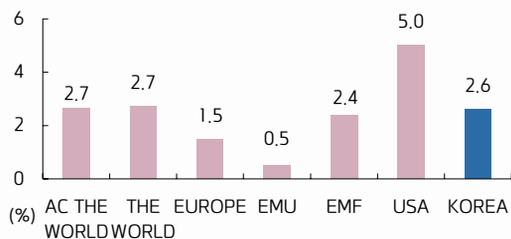
자료: IBES (2013. 01. 03), 키움증권
 주 Taiwan 의료/유틸리티 업종 집계되지 않음

>>> MSCI 주요 지역 업종별 지수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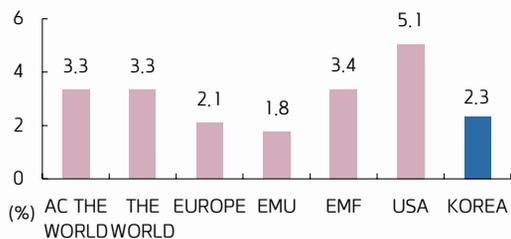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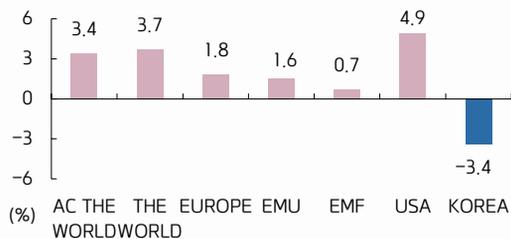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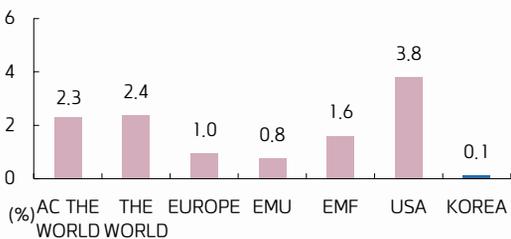
산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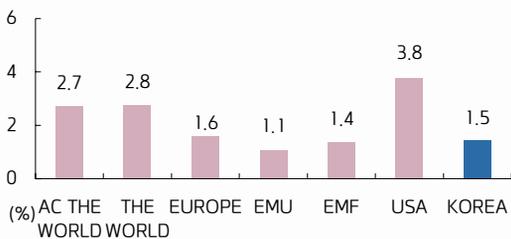
경기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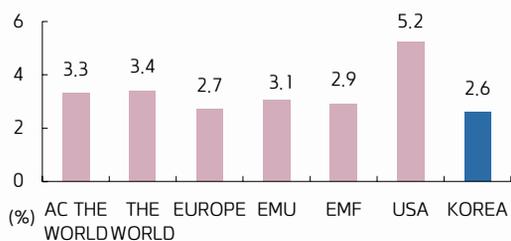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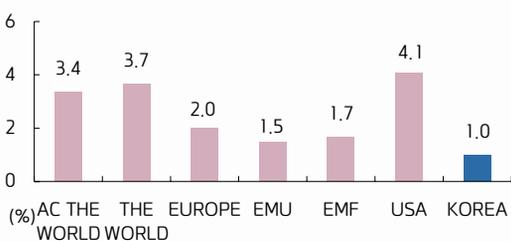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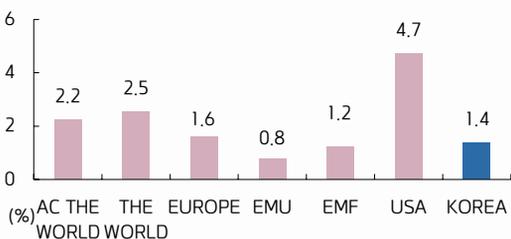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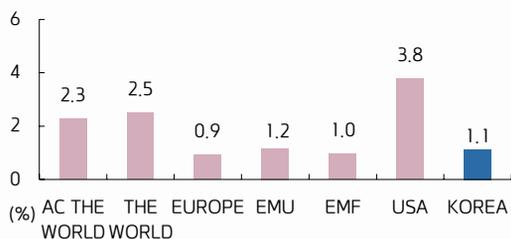
IT



통신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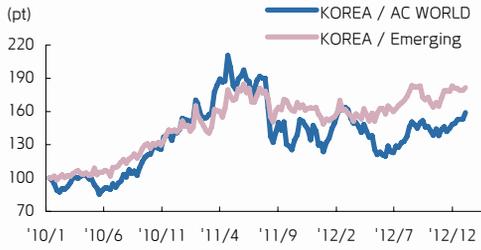


유틸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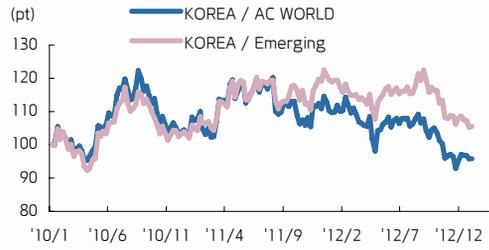


>>> MSCI KOREA 주요 시장대비 상대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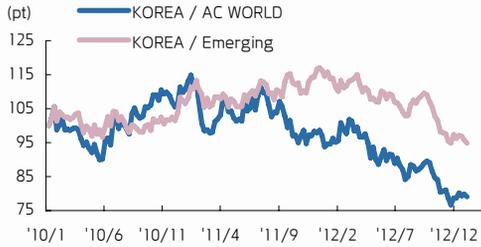
에너지



소재



산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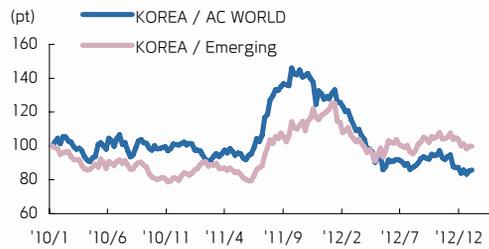
경기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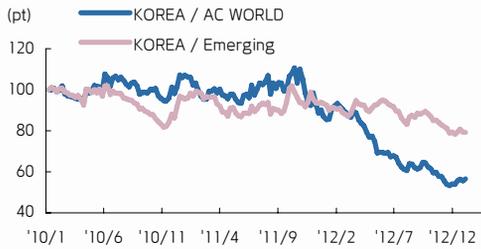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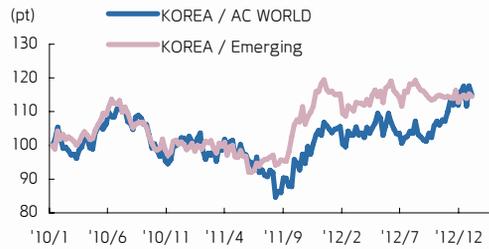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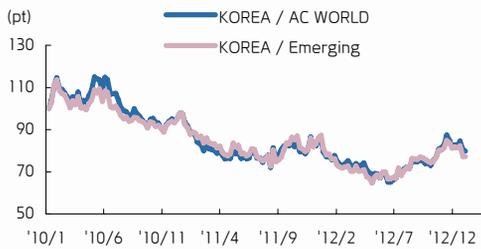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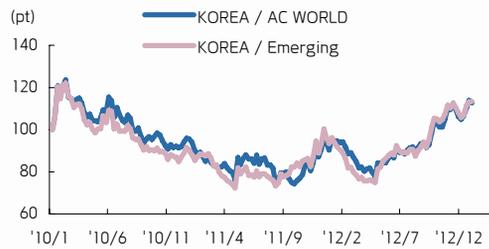
IT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 해외 주요지수 · 종목 동향

주요국 지수	증가	D-1	D-5	D-20	주요 상품가격	증가	D-1	D-5	D-20
Dow	13,435.21	+0.33%	+2.59%	+3.07%	금(COMEX)	1,648.90	-1.53%	-0.82%	-2.57%
NASDAQ	3,101.66	+0.04%	+3.88%	+4.30%	천연가스(NYMEX)	3.29	+2.78%	-2.00%	-11.16%
S&P 500	1,466.47	+0.49%	+3.41%	+4.06%	알루미늄(LME,3M)	2,089.00	-2.63%	+0.34%	-0.74%
Semiconductor	397.68	+0.03%	+4.78%	+6.20%	전기동(LME,3M)	8,060.00	-1.30%	+2.03%	+0.62%
NYSE	8,667.68	+0.70%	+3.19%	+4.87%	아연(LME,3M)	2,054.00	-3.43%	-1.86%	+1.26%
NASDAQ 100	2,724.49	-0.28%	+3.48%	+3.28%	WTI(현물)	93.09	+0.18%	+2.44%	+5.93%
S&P 100	664.69	+0.36%	+3.28%	+3.52%	옥수수	680.25	-1.31%	-1.63%	-9.69%
S&P mid 400	1,056.07	+0.75%	+4.41%	+5.65%	설탕(NYBOT/ICE)	18.85	-1.31%	-3.08%	-3.68%
S&P small 600	492.62	+0.71%	+4.73%	+6.73%					
Russell 2000	879.15	+0.75%	+4.99%	+7.14%	한국 DR 및 환율				
영국	6,089.84	+0.70%	+2.28%	+3.76%	KB금융지주(ADR)	36.70	-0.24%	+4.59%	+10.78%
독일	7,776.37	+0.26%	+1.84%	+5.01%	신한지주(ADR)	38.02	+0.45%	+6.29%	+20.70%
프랑스	3,730.02	+0.24%	+1.52%	+4.18%	LG디스플레이(ADR)	14.25	-3.65%	+0.71%	-12.47%
일본	10,688.11	+2.82%	+7.53%	+13.15%	POSCO(ADR)	86.69	+0.30%	+7.14%	+16.60%
대만	7,805.99	-0.39%	+2.06%	+2.40%	SK텔레콤(ADR)	15.99	+1.91%	+2.11%	+2.43%
홍콩항셍	23,331.09	-0.29%	+3.14%	+7.02%	한국전력(ADR)	14.71	+0.14%	+8.00%	+18.92%
홍콩 H	11,937.45	-0.42%	+5.19%	+13.43%	KT(ADR)	17.38	+2.54%	+4.45%	+0.12%
상하이종합	2,276.99	+0.35%	+2.86%	+15.28%	우리금융지주(ADR)	34.59	-0.31%	+5.36%	+23.63%
상하이A	2,384.19	+0.34%	+2.85%	+15.29%	삼성전자(GDR)	719.00	-1.51%	+3.83%	+8.94%
선전A	915.82	-0.43%	+2.48%	+18.00%	삼성전자 우 (GDR)	400.60	-1.81%	+1.42%	+2.35%
태국	1,416.66	+0.59%	+2.49%	+6.28%	현대차 우 (GDR)	31.30	+2.29%	-4.86%	-7.29%
싱가폴	3,225.22	+0.01%	+1.30%	+4.85%	LG전자(GDR)	9.94	0.00%	+2.58%	+1.95%
인도네시아	4,410.02	+0.24%	+3.16%	+2.50%	롯데쇼핑(GDR)	18.07	+4.15%	+6.29%	+11.47%
러시아	1,530.41	+0.22%	+0.96%	+5.42%	STX팬오션(SGD)	5.23	+2.55%	+23.93%	+36.91%
인도	19,784.08	+0.10%	+1.74%	+1.53%	원/달러	1,063.60	+0.20%	-0.80%	-1.80%
멕시코	44,562.33	+0.43%	+2.51%	+5.25%	엔/달러	88.15	+1.04%	+2.55%	+6.86%
브라질	62,523.06	-1.25%	+2.56%	+7.42%	달러/유로	1.3069	+0.15%	-1.11%	+1.10%
한국	2,011.94	-0.37%	+1.50%	+3.71%	위안화/달러	6.2306	-0.03%	-0.03%	+0.10%

다우지수 구성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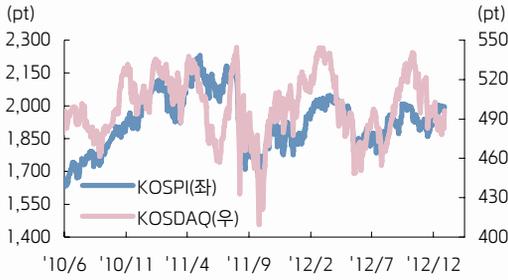
3M	95.41	+0.78%	+2.99%	+5.12%
Alcoa	9.26	+2.09%	+7.42%	+8.05%
Altria Group	32.56	-0.06%	+3.63%	-2.28%
American Express	59.61	+1.03%	+5.15%	+5.69%
AIG	36.18	+0.33%	+3.80%	+7.46%
AT&T	35.23	+0.57%	+4.66%	+3.89%
Boeing	77.69	+0.28%	+2.45%	+5.17%
Caterpillar	94.92	+0.55%	+8.28%	+10.31%
Citigroup	42.43	+2.51%	+8.10%	+16.37%
Coca Cola	37.66	+0.16%	+3.40%	+0.94%
Du Pont	45.71	+0.93%	+1.42%	+7.25%
Exxon Mobil	88.96	+0.46%	+2.42%	+1.40%
General Electric	21.20	+0.47%	+2.46%	-0.14%
General Motors	29.86	+0.13%	+6.80%	+19.44%
Hewlett Packard	15.14	0.00%	+7.83%	+9.47%
Home Depot	63.18	-0.24%	+3.46%	-1.30%
Honeywell	36.30	+0.33%	+3.80%	+7.46%
IBM	193.99	-0.66%	+0.66%	+2.83%
Intel	21.16	-0.75%	+3.17%	+6.60%
J&J	71.55	+1.15%	+2.08%	+2.26%
JPMorgan	45.36	+1.77%	+3.97%	+10.10%
McDonald's	89.90	-0.83%	+1.33%	+3.37%
Merck	41.93	-1.02%	+1.77%	-5.54%
Microsoft	26.78	-1.83%	-0.67%	+0.37%
Pfizer	25.96	+0.43%	+3.26%	+1.25%
P&G	69.09	+0.20%	+1.65%	-0.46%
United Tech	84.98	+0.79%	+3.55%	+5.92%
Verizon	44.30	+0.54%	+1.89%	+0.45%
Wal Mart	69.06	+0.38%	+1.28%	-3.61%
Walt Disney	52.19	+1.91%	+5.37%	+5.24%

필라델피아반도체 구성종목 및 주요 기술주

AMD	2.59	+4.02%	+8.37%	+13.10%
Altera	35.14	-0.23%	+2.33%	+13.35%
Applied Materials	11.81	-0.08%	+4.05%	+9.35%
Broadcom	34.44	-0.55%	+5.32%	+6.49%
Cree	34.36	-0.61%	+2.60%	+8.32%
Intel	21.16	-0.75%	+3.17%	+6.60%
KLA-Tencor	48.98	-0.33%	+3.27%	+5.56%
LAM research	38.07	+0.24%	+5.81%	+7.97%
Linear Tech	35.71	-0.28%	+5.15%	+7.66%
Marvell Tech	7.82	+4.41%	+9.52%	-10.32%
MEMC	3.70	+0.27%	+20.13%	+24.16%
Micron Tech	6.96	+0.87%	+11.90%	+12.62%
National Semi	24.74	+0.20%	-0.12%	+0.57%
Novellus System	40.39	-0.47%	-6.16%	-10.44%
Sandisk	45.46	+1.75%	+5.18%	+14.22%
Stmicroelectron	7.30	-0.82%	+4.14%	+12.31%
Taiwan Semi	17.96	-0.72%	+5.77%	+5.90%
Teradyne	17.30	+0.23%	+4.47%	+9.98%
Texas Instrument	29.11	-0.78%	-1.32%	-3.64%
Xilinx	36.50	-1.40%	+2.01%	+6.10%
Apple	527.00	-2.78%	+2.32%	-2.19%
Ebay	52.78	+0.63%	+4.95%	+1.46%
Cisco	20.48	+0.16%	+4.23%	+6.62%
Dell	10.97	+0.27%	+7.65%	+5.79%
Research In Motion	11.95	+4.09%	+1.62%	+0.08%
Google	737.97	+1.98%	+4.49%	+7.29%
Nokia	4.18	+0.48%	+4.50%	+7.73%
Oracle	34.61	+0.87%	+4.03%	+8.16%
Qualcomm	63.50	-1.47%	+3.24%	-0.20%
Yahoo	19.86	+0.40%	+1.33%	+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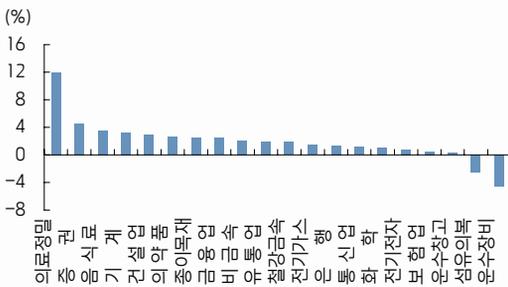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KOSPI vs KOSD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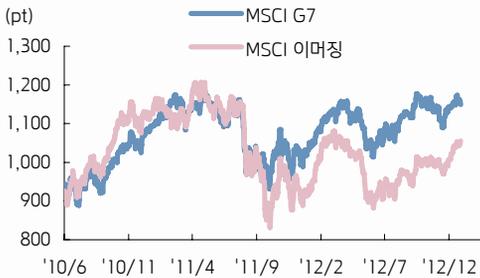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업종별 주간 등락률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MSCI G7 vs MSCI 이머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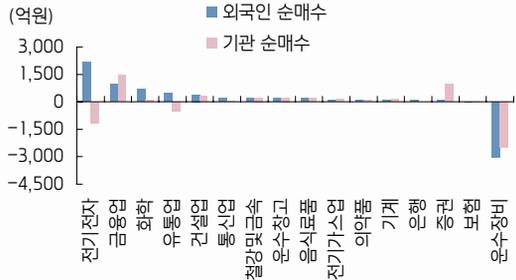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닛케이 225 vs 대만 가권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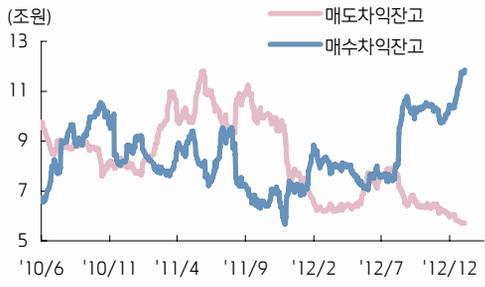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업종별 주간 기관 vs 외국인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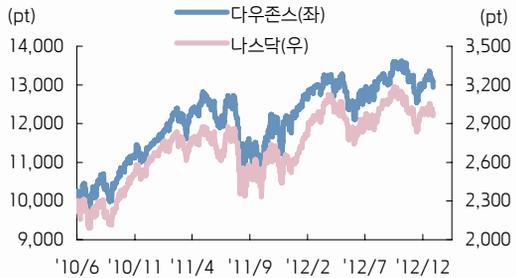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매수차익잔고 vs 매도차익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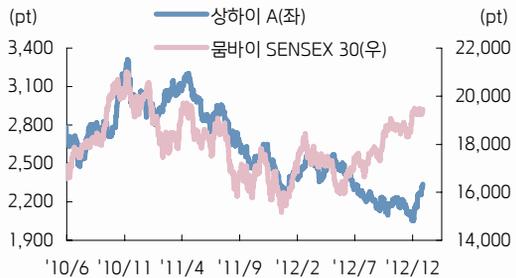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다우존스 vs 나스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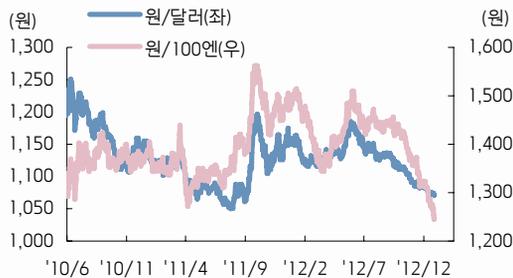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상하이 A vs 뭄바이 SENSEX 30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원/달러 vs 원/100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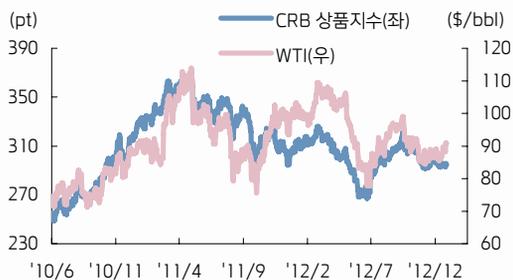
자료: CEIC, 키움증권

미 국채 수익률 2년 vs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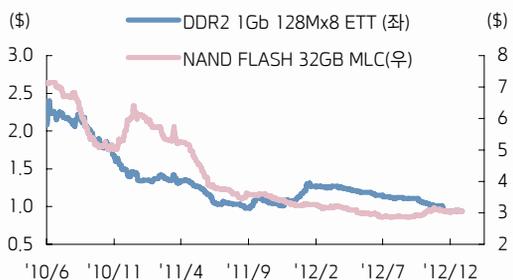
자료: CEIC, 키움증권

CRB 상품지수 vs WTI 현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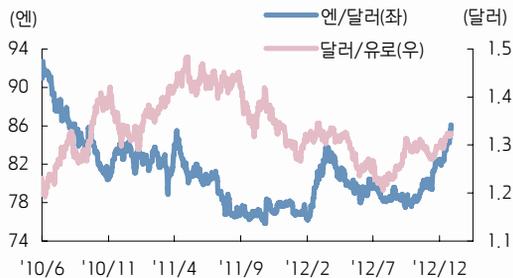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DRAM2 1GB vs NAND FLASH 32GB MLC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엔/달러 vs 달러/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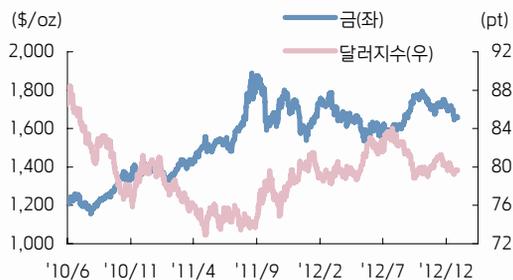
자료: CEIC, 키움증권

국고채 수익률 3년 및 회사채 AA- 수익률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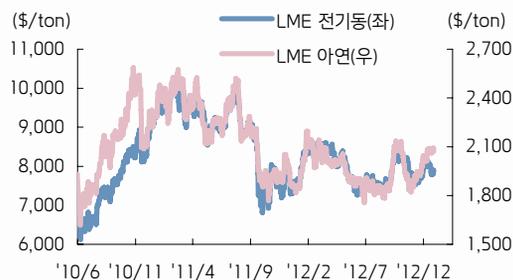
자료: CEIC, 키움증권

국제 금가격 vs 달러 인덱스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LME 전기동 3M vs LME 아연 3M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